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7월 14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녹지정책과	담 당 자	• 도시녹화팀장 황현목 ☎440-3691 • 담당자 공경화 ☎440-36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골목 곳곳 푸르게 가꿀 시민정원사 24명 배출

- 14일 ‘2022년 인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
- 스마트가든 관리, 마을정원 가꾸기 등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추첨을 통해 선발돼 교육받은 24명의 시민정원사들이 이날 수료식에 참석했다.

시는 그간 81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스마트가든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양성교육은 화분 가꾸기, 정원 만들기 등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정으로 구성돼 수료생의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지난 5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총 80시간 동안 토양의 이해, 가지치기

이론 및 실습, 수목의 병충해, 미세먼지 저감식물의 이해 및 접시정원 만들기, 나만의 정원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또 서울수목원, 석모도수목원, 인천대공원 등을 답사하며 식물과 조경에 대한 안목도 넓혔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민들은 스마트가든 관리, 마을정원 가꾸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원교육이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정원사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 시의 소규모 녹지공간과 집주변 골목경관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 교육사진

